

한국의 정책 형성에서 생활시간조사(Time Use Survey)의 활용과 시사점



요약(EXECUTIVE SUMMARY)

무급 돌봄 노동은 인적 역량을 개발하고 노동력을 유지하며, 경제가 기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동시에, 무급 돌봄 노동은 주로 여성과 소녀들에 의해 이뤄지며, 이러한 불균등한 분배는 교육 기회와 노동시장 참여 등 여러 측면에서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합니다. 생활시간조사자료(시간사용데이터, Time Use Data)는 이러한 무급 돌봄 노동을 측정하는 핵심 도구로서, 성별 불평등 해소, 돌봄 노동 재분배, 여성의 노동 부담 경감 및 노동시장 참여 촉진, 강력한 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 설계 및 분석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Data2X는 시간 사용 데이터를 수집한 국가들의 경험과 이 데이터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다양한 환경에서 조사하기 위해 여러 국가 사례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케냐, 몽골, 세네갈, 한국 등 네 국가 사례는 각 나라에서 국가 차원의 시간 사용 조사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시간 사용 데이터가 정책 결정과 정책 담론에 미친 영향과 데이터의 활용도를 분석합니다. 이어 각 국가에서 시간사용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한 요인과 이를 가로막는 요인을 살펴봅니다. 본 사례 연구는 한국의 시간 사용 조사 시행 경험과, 이를 정책 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다룹니다.

1999년 이후 5년마다 전국 대표성을 갖춘 생활시간조사(TUS)를 국가의무통계의 하나로 수행해 온 한국의 주목할만한 궤적은 유엔(UN)과 세계 여성 운동과 같은 국제사회의 영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995년 UN 제4차 세계 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베이징 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은 여성의 무급 노동을 측정하고 그 가치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997년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고 위성계정을 통해 이를 국가 경제 통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단위 생활시간조사(TUS)를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가계생산 위성계정(Household Production Satellite Account) 도입에는 위성계정을 통해 경제 규모를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유엔의 권고와 프랑스, 핀란드, 스위스,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여러 국가의 위성계정 시행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 1999년 첫 번째 조사를 실시한 이후 매 5년마다 생활시간조사(TUS)를 시행,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번째 조사인 2024년 데이터가 2025년 발표될 예정입니다):

연도		1999	2004	2009	2014	2019
표본	총 가구 수	17,000	12,750	8,100	12,000	12,435
	응답자 수(대략)	46,000	32,000	21,000	27,000	29,000
시간일지 수(대략)		92,000	64,000	42,000	34,000	38,000
조사 월		9월	9월	3월 9월	7월 9월 11월-12월	7월 9월 11월-12월

2019년 생활시간조사(KTUS)는 10세 이상 한국 인구를 대표하는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계층화된 2단계 군집 표본 추출 방식(stratified two-stage cluster sampling)을 적용하여 전국 12,435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 12,388가구에서 26,091명의 유효한 응답을 확보했습니다. 2019년 조사 결과는 유·무급 노동의 분담에서 지속적인 성별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2019년 기준 19세 이상 한국 여성들은 하루 평균 3시간 13분을 무급 노동에 할애했으며, 이는 2014년 (3시간 25분)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남성의 무급 노동 시간은 2014년 하루 평균 46분에서 2019년 56분으로 약간 증가했습니다.

KTUS는 한국의 정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KTUS는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겪는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무급 노동의 불균등한 분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KTUS 데이터에서 드러난 맞벌이 부부 간 무급 노동의 성별 격차는 제3차 양성평등 기본 계획과 제3·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2021~2025)에서 일-가정 양립과 더 나은 아동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지방 정부의 정책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조부모 돌봄 수당 정책은 수당 규모 책정에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국가시간이전계정 (NTTA)을 참고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한 달에 4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어린이 한 명당 약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같은 정책은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시간조사데이터를 활용한 가계 생산 위성 계정(Household Production Satellite Accounts)은 무급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수치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9년 가사노동 가치가 490조 9천억 원에 달한다는 통계는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슈화 되었으며, 가사노동 수당 제안이 정책 아이디어로 주목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에서는 이 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수당 자격 기준과 지급 구조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노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간 사용 데이터 활용을 촉진한 요인으로는 먼저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이라는 인구학적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의 시급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생활시간조사의 높은 품질과 신뢰도, 이 데이터가 제공하는 상세한 정보와 대중의 지지도 데이터의 활용을 뒷받침했습니다. 복잡한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한 통계청(NSO) 등의 노력 역시 미디어 보도 등을 통한 데이터 확산을 효과적으로 촉진했으며 이는 대중의 관심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간사용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몇 가지 도전 과제도 존재합니다. 우선,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응답자와 조사원, 코딩 담당자 및 관리자 모두에게 상당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조사 주기가 비교적 길어 코로나 19와 같은 주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동시 활동 및 함께 한 사람과 같은 맥락 정보의 기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아쉬운 점입니다. 나아가, 정책담당자, 연구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시간사용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한국의 사례는, 시간사용 데이터의 정책적 활용을 극대화하기 하기 위해 다음 사항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시간 사용 데이터와 구체적 정책 목표의 연계: 인구학적 변화 등 시급한 정책 과제와 연관지어 데이터를 제시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고품질 데이터 수집 및 기술 혁신: 조사 과정을 단순화하고 응답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 도입이 필요합니다.
- 명확한 의사소통과 협업: 시간사용 데이터 분석 결과의 효과적인 확산과 지속적인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은 공공의 지지와 인식 제고에 필수적 요소입니다.
-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과 자원 지원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데이터의 잠재력을 정책 개발에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서론

시간사용데이터 (생활시간조사자료 Time-Use Surveys) 데이터는 개인이 24시간 동안 어떤 활동에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이해하고 시간 배분에서의 불균형을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정책 결정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한국은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전국 생활시간조사 (Korean Time-Use Survey, KTUS)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일-가정 양립, 성평등, 무급 노동의 가치 인정 등을 위한 정책 개발에 필요한 포괄적 데이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 연구는 한국이 전국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시간사용데이터의 정책 적용에 있어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며, 이 데이터가 정책 결정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된 중요한 요인들을 식별합니다. 한국의 사례를 통해 얻은 통찰은 향후 여러 나라의 정책 개발에서 시간 사용 데이터가 보다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서는 2019년 KTUS의 조사 방법론과 적용 범위를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KTUS를 활용한 분석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개발하기 위해, 우리는 정부 관계자, 정책 입안자, 연구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관련 문헌, 보고서, 이전 연구를 검토하여 다각적이고 엄밀한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다음 절에서는 한국이 전국 단위 시간사용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을 살펴봅니다.

한국 생활시간조사 자료 (KTUS) 수집 배경

한국의 전국 생활시간조사 자료 수집은 무급 노동의 가치, 특히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여성의 중요한 기여를 인정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계청(2019)에 따르면, 1975년 멕시코 세계 여성의 해 회의, 1985년 나이로비 회의, 1995년 베이징 제4차 세계 여성 회의 등 여러 중요한 국제적 이정표(milestones)가 경제 통계와 국가 계정에 무급 노동을 정량화하고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995년 UNDP 인간 개발 보고서는 법적 및 경제적 인정을 위해 무급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는 한국의 생활시간조사 시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KTUS의 시작을 지켜본 인터뷰 참여자 A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시간사용데이터를 인정한 사실이 한국이 시간사용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 계기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논의의 처음부터 여성의 무급 노동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반드시 측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생활시간자료 수집이 시작된 배경에는 페미니스트 그룹과 유엔의 활동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인터뷰 참여자 A)

가사 노동, 자원봉사, 노인과 환자 돌봄 등을 포함한 무급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라는 이러한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은 법적으로 지정된 국가 통계 중 하나로 생활시간조사를 시행했습니다. 1997년 제1차 여성 정책 기본 계획(1998-2002)은 가사 노동을 평가하고 이러한 결과를 국가 회계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전국 단위 시간 사용 조사를 의무화했으며, 특히 가계 생산을 위한 위성 계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1998년과 1999년에 파일럿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1999년 9월에 첫 번째 본조사가 시행됐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5년마다 전국 생활시간자료를 수집해 왔으며, 현재 2024년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표 1은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된 다섯 차례의 KTUS 조사 표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표 1. 한국 생활시간조사

연도		1999	2004	2009	2014	2019
표본	가구 수	17,000	12,750	8,100	12,000	12,435
	응답자 수(대략)	46,000	32,000	21,000	27,000	29,000
시간일지 수(대략)		92,000	64,000	42,000	34,000	38,000
조사 시행 시기(월)		9월	9월	3월 9월	7월, 9월, 11월-12월	7월, 9월, 11월-12월

2019년 한국 생활시간조사(KTUS)의 간략한 개요

한국 생활시간조사(KTUS)의 범위와 방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데이터인 2019년 KTUS 데이터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2019년 KTUS에서 사용된 표본 설계, 조사 방법, 그리고 돌봄 관련 활동 분류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표본 설계

2019년 KTUS는 10세 이상의 한국 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계층화된 2단계 군집 표본 추출 설계를 사용했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 12,435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고, 해당 가구에 거주하는 10세 이상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KTUS는 총 12,388가구에서 26,091명의 유효한 응답을 얻었습니다.

설문 조사 방법

조사원들은 대면 인터뷰를 통해 응답자로부터 인구 통계학적 및 사회 경제적 정보와 같은 가구 및 개인 수준의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그 후 시간 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았습니다. 응답자들은 이를 연속으로 시간 일지를 작성했으며, 10분 간격으로 활동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주요 활동, 모든 동시 활동, 각 활동 중 ICT 기기 사용, 자신의 위치, 교통 수단,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을 기록했습니다. 조사원들은 완성된 일지를 수집하기 위해 이들 후에 가구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조사원들은 상세하고 정확한 시간 사용 데이터 수집을 위해 통계청 사회 통계 기획과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교육에는 조사 목표, 방법론 및 활동 분류 지침에 대한 세부 설명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조사원들에게는 일관되고 정확한 데이터 기록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분류 기준의 예시가 포함된 설명서가 제공되었습니다.

무급 노동 및 돌봄 활동 분류 예시

한국 생활시간조사 (KTUS) 활동 분류 체계는 원래 1999년에 EUROSTAT과 UNSD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분류 체계는 설문 조사가 관련성을 유지하고 사회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매 5년마다 수정 및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19년 개정된 분류 체계는 2016년 유엔의 국제 시간 사용 통계 활동 분류 (ICATUS)체계를 반영해 국제 비교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2019년에는 무급 돌봄 활동 분류에서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성인 돌봄 활동이 배우자, 부모, 기타 가구 구성원 등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간의 관계와 그들의 거주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성인을 돌보는 것'과 '신체적 돌봄이나 기타 돌봄이 필요한 독립적인 성인을 돌보는 것'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분류가 개선되었습니다.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이러한 개선은 무급 돌봄 노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책 개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록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한 사람'의 정의가 수정되었습니다. 2019년 이전 이 용어는 응답자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응답자와 함께 주행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지칭했습니다. 국제 표준에 따라 개정된 정의에서는 동일한 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이전 조사에서 종종 과소 보고되었던 수동적인 돌봄 활동, 예를 들어 아이를 감독하는 활동 등을 포착하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아래 표 2는 2019년 KTUS에서 사용된 돌봄 관련 활동의 코드와 범주를 보여줍니다. 조사원, 코더 및 데이터 사용자에게는 각 코드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자세한 예시와 설명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분류 체계는 KTUS가 무급 돌봄 노동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하여, 경제 및 사회 정책 개발에서 무급 돌봄 노동의 인정과 가치를 평가하는 데 기여합니다.

표 2. 2019년 한국생활시간조사 무급 돌봄 노동 활동 분류

4 가정관리			
41	음식준비	411	식사준비
		412	간식 · 비일상적 음식 만들기
		413	설거지 · 식후정리
42	의류 관리	421	세탁하기
		422	세탁물 건조
		423	다림질 및 옷정리
		424	의류수선 및 손질
43	청소 및 정리	431	청소
		432	정리
		433	쓰레기 분리 및 버리기
44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	-
45	차량 관리 및 유지	-	-
46	반려동물 및 식물 돌보기	461	반려동물 돌보기
		462	식물 돌보기
		463	반려동물 및 식물 서비스 받기
47	상품 및 서비스 구입	471	상품 매장 쇼핑
		472	상품 온라인 쇼핑
		473	서비스 현장 구입
		474	서비스 온라인 구입
		479	기타 쇼핑관련 행동
49	기타 가정관리	-	-
5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51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511	신체적돌보기
		512	간호하기
		513	훈육 및 공부 가르치기(봐주기)
		514	책 읽어 주기,대화하기
		515	아이와 놀아주기,스포츠활동하기
		516	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 등 방문
		519	기타 돌보기
52	만 10세 이상 미성년자 돌보기	-	-
53	장기 돌봄 필요 성인 돌보기	-	-
54	독립적인 성인 돌보기	-	-

약간의 진전, 여전히 차이(Progress Made, But Disparities Persist): 한국의 유·무급 노동 성별 격차

2019년 KTUS 결과는 유급 및 무급 노동 분담에서 성별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내며, 성평등 달성을 위한 그동안의 진전과 현재의 당면 과제를 동시에 부각시켰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는 성평등에 있어 일부 개선된 측면을 제시하면서도 가사 및 돌봄 노동 분담의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함을 시사합니다.

2019년 한국의 19세 이상 여성은 하루 평균 3시간 13분을 무급 노동에 할애했으며, 이는 2014년의 3시간 25분에서 약간 감소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남성의 무급 노동 시간은 2014년 46분에서 2019년 56분으로 하루 평균 10분씩 증가했습니다(그림 1 참조). 그러나 변화의 크기는 소폭에 그쳐 여전히 여성들이 무급 노동의 부담을 주로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2019년, 만 10세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무급 노동에 하루 평균 6시간 11분을 소비하였으며, 이 중 3시간 13분은 아이를 돌봤습니다. 반면, 아버지들은 하루 평균 1시간 44분을 무급 노동에 소비했으며, 그 중 1시간 2분을 돌봄에 사용했습니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어머니들의 무급 노동 시간을 26분 줄어든 반면, 아버지들의 무급 노동 시간은 25분 증가했습니다(그림 2). 이러한 변화는 보다 평등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시사하지만, 전체적인 노동 분담은 여전히 크게 불균형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격차는 맞벌이 가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2019년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은 하루 평균 5시간 50분을 유급 노동에 할애했으며, 아내는 4시간 37분을 일했습니다. 그러나 무급 노동에서는 격차가 훨씬 더 커져, 남편은 하루 평균 54분을 무급 노동에 소비한 반면, 아내는 3시간 7분을 담당하여 남편의 세 배 이상을 부담했습니다(그림 3). 생활시간데이터 분석 결과는 많은 여성들이 직장 외 가정의 이중 부담을 겪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처럼, 2019년 KTUS 통계는 그동안 한국 사회의 유급 및 무급 노동의 성별 분담에 일부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 데이터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는 정책들을 지원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림 1 2014년과 2019년 유급 및 무급 노동의 전반적인 성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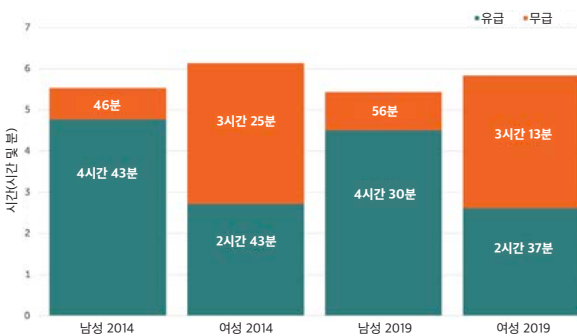


그림 2 2014년, 2019년 10세 미만 영유아 부모의 무급 노동



그림 3 2019년 맞벌이 가구의 유급 및 무급 노동에 소요된 시간



생활시간조사 데이터의 정책 활용과 통합: 성과 및 촉진 요인

2000년대 이후, 한국은 합계 출산율이 2000년 1.48에서 2023년 0.72로 크게 하락하는 등 급격한 인구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정부로 하여금 다양한 돌봄 및 성별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부록 I, II 참조),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는 무급 노동을 측정하고 추정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포괄적 통계 자료로서 이러한 각종 정책 개발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Data2X(Buvinic and King, 2018)가 개발한 데이터-정책 프레임워크 (Data-to-Policy Framework)에 따르면, 데이터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 영향은 데이터가 정책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 나타납니다. 간접적 영향은 데이터가 정책 이슈에 대한 이해와 개념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간접적 영향은 주로 미디어 보도, 연구 보고서, 공공 담론 등을 통해 확산됩니다. 한국에서 시간사용데이터가 직접적으로 정책 변화를 이끌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특히 정책의 정당화와 근거 제시 측면에 있어 이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여러 정책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는 그동안 대중과 정책 입안자 모두의 인식 전환에 기여하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정책 개발에 상당한 간접적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시간사용데이터가 한국의 특정 정책 영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 활용과 통합 과정에서의 성과 및 촉진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간 사용 데이터 활용 및 통합 사례

일-가정 양립 및 성평등 정책의 발전

시간 사용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한 영역 중 하나는 일과 삶의 균형(일-가정 양립) 개선과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 형성입니다. 연구 보고서 및 미디어를 통한 시간사용 데이터의 지속적인 확산(부록 IV, V)은 가사노동과 돌봄 책임에서의 성별 격차 문제를 부각시키며, 무급 노동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분배하려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지지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시간사용 데이터 분석 결과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던 성별 분업의 현실을 숫자로 입증해 주었으며, 때로는 충격적인 수치를 통해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언급하였습니다(인터뷰 참여자 B). 이와 같은 인식의 전환은 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위기와 맞물려 일-가정 양립 및 성평등 정책 개발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특히 맞벌이 가정이 겪는 가사 및 보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사용 데이터가 비교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제3차 및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2021-2025)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맞벌이 부부 간 무급 노동의 현저한 격차를 보여주는 2019년 한국시간사용조사(KTUS) 결과가 성평등, 일-가정 양립, 육아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2023-2027)에서도 맞벌이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세 배 이상 길다는 생활시간조사 결과는 모성·부성 보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장시간 유급 노동을 완화하여 남성의 무급 돌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의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이후 육아 휴직 제도의 강화(부록 II)로 이어졌으며, 특히 남성과 여성 간의 보다 평등한 육아 부담을 촉진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도입된 ‘3+3 육아 휴직 정책’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100%, 이후 추가 3개월 동안 80%를 지급하는 특별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부모의 동시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또한, 2018년 2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대 주 69시간이었던 법정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어 일·생활 균형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 보육시설과 직장 내 보육시설의 확대,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한 가족 돌봄 휴가 등 보다 포괄적인 육아 지원 정책도 도입되었습니다.²

1 2024년에는 ‘6+6 부모휴가제’로 개편되어, 생후 18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젠더 및 돌봄 관련 정책의 예는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무급 노동의 인정 및 가치 평가

시간 사용 데이터의 또 다른 중요한 기여는 전통적으로 경제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무급 노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생활시간조사의 정기적인 수집과 분석은 요리, 청소, 육아 등 무급 노동을 측정하고 화폐 가치로 산정하는 가계생산위성계정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계정을 통해 해당 활동들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가 부각됨에 따라, 무급 노동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명확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통계청(2021)에 따르면, 2019년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490.9조 원으로 추산되어 명목 GDP의 25.5%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2014년 대비 35.8% 증가한 수치입니다. 1인당 기준으로 2019년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는 949만 원으로, 5년 동안 33.3%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성별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여, 남성의 1인당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521만원(49.6% 증가), 여성은 1380만원(27.9% 증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영향이 종종 간접적이긴 하지만, 무급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가시화한 것은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무급 노동을 인정하는 보다 포괄적인 경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계 생산 위성 계정에서 보고된 2019년 가사 노동의 가치는 490.9조 원으로, 이는 2022년 지방 선거에서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으며, 가사 노동 수당 도입 제안이 중요한 정책 아이디어로 주목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이 가치를 기반으로 가사 노동 수당 자격 기준과 지급 구조에 관한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수당 제정을 위한 입법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이 통계는 무급 가사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지방 정부에서의 관련 논의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이혼 재산 분할시 가사노동 가치 재산정, 민간 보험 상품 개발, 국민연금 기준 개정 논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구체적인 법적·정책적 조치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A).

생활시간조사(KTUS)가 도입된 배경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가계생산위성계정(Household Production Satellite Account)의 채택 또한 비시장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국제적으로 확대된 영향을 받았습니다.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전통적인 경제 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대체적인 가계생산 위성계정의 도입을 권장해 왔으며, 프랑스, 핀란드, 스위스,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점 또한 한국이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통계청, 2018).

또 다른 중요한 KTUS 데이터의 응용 사례로는 국가시간이전계정(National Time Transfer Accounts, NTTA)이 있습니다. 한국 NTTA는 KTUS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령별 무급 가사노동의 생산, 소비 및 이전(transfer)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2019년 데이터를 토대로 구성되어 2023년 6월 처음으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KTUS 데이터는 NTTA 구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개인이 다양한 활동에 어떻게 시간을 할애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후 가구 조사 데이터를 결합하여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생산·소비 패턴을 평가함으로써, 무급 노동의 연령별 경제적 기여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NTTA는 무급 노동의 소비와 생산 간 격차로 발생하는 생애주기 적자(lifecycle deficit)와 흑자(surplus)의 분포,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원 흐름을 성별 및 세대별로 분석하는 데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NTTA 통계에 따르면, 한국 남성은 무급 노동에서 91조 6천억원의 생애주기 적자를 보인 반면, 여성은 동일한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연령대별로 보면 0~14세 아동은 131조 6천억원 규모의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주로 부모의 돌봄 노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3조 5천억원의 소규모 흑자를 나타내어, 일부 고령층이 손자 돌봄이나 가사활동을 통해 무급 노동을 생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통계청, 2023).

이러한 상세한 통계는 정책 입안자들이 사회 지출, 보육 지원 및 초저출산과 같은 급격한 인구 변동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터뷰 참여자 E는, “NTTA를 활용하여 비공식 돌봄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정책 논의가 있었다”며 손자녀 돌봄을 맡은 조부모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NTTA는 조부모의 돌봄 기여 가치를 이해하고 정책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터뷰 참여자 E)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이니셔티브 (INITIATIVES)

최근 몇 년 간 지방정부에서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가사노동에 대한 수당 지급 등 다양한 정책 이니셔티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광주광역시도 무급 가사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가사 노동 수당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광주시는 기존의 정책 보조금에서 간과되기 쉬운 40~5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광주형 가사 노동 수당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이 모델의 개발은 가계 생산 위성 계정을 통해 확인된 무급 노동의 경제적 기여가 큰 영향을 미쳤으며, 시간 사용 조사에서 산출된 구체적인 데이터 또한 모델 설계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광주시 여성정책과에서 가사 노동 수당 제도의 실현 가능성과 시행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이 제도는 가사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간 사용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여성이 가사 노동에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도 역시 무급 가사 노동의 사회적 중요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책은 무급 노동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시간 사용 데이터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경기·광주·경남·부산 등 여러 지방정부에서도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한 달에 40시간 이상 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나 다른 친척에게 자녀 1인당 약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 사용 데이터는 이러한 시책의 추진 배경과 동기, 그리고 수당 기준과 조건을 설정하는 근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촉진 요인

KTUS 데이터가 한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기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주요 촉진 요인이 있습니다..

고품질 데이터

인터뷰에 응한 정책 입안자와 데이터 전문가들은 시간 사용 데이터가 높은 품질, 구체적인 세부 정보, 그리고 신뢰도를 갖추고 있어 정책 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인터뷰 참여자 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간 사용 조사는 연령, 고용 상태, 자녀 유무에 따른 시간 사용 패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 결과의 신뢰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특히, 지방정부와 정책을 논의할 때, 지역별·도시별 평균 가사노동 시간의 차이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정책 환경: 국가적 맥락

정책 수립에서 데이터의 활용도는 인구통계학적·경제적·사회적 도전과제를 포함한 국가적 맥락에 의해 좌우됩니다 (Buvinic and King, 2018).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 등 한국이 직면한 인구학적 위기는 일-가정 양립과 성평등을 지원하는 정책의 긴급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로 시간 사용 데이터가 정책에 활용되는 흐름은 이러한 맥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정책 입안자, 데이터·젠더 전문가들은 돌봄 제공과 일-가정 양립이 주요 정책 의제로 부상함에 따라, 시간 사용 데이터가 “한국 사회에서 시간 배분과 일-가정 양립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독특한 자료”(인터뷰 참여자 D)로 주목받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UN, OECD 등 국제기구의 권고 및 글로벌 협약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시 포괄적인 시간사용 데이터의 도입과 활용을 촉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확산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노력

연구 간행물과 언론을 통한 시간 사용 데이터 결과의 확산은 성별 격차와 무급 노동의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관심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G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무급 노동의 불평등 문제는 한국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강조되었으며, 덕분에 일반 대중조차 여성과 남성 간 가사노동 시간 차이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G)

연구자와 정책 결정자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및 지원 노력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인터뷰 참여자 H는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통계청에서) 복잡한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 자료를 제작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맞춤형 데이터 표를 제공해 왔다” 고 설명했다.

인터뷰 참여자 C는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 결정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할 때, 저희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을 때마다 보완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 결과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분석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인터뷰 참여자 C)

이처럼 수집이 어려운 시간사용 데이터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며 성평등 확산에 신념을 가진 연구자와 정책 실무자의 노력이 핵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및 성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책 수립에서 시간사용 데이터 활용 강화: 제약과 기회

앞서 논의된 성과들은 한국에서 시간사용 데이터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 제약으로 인해 그 영향력과 효과가 제한되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데이터가 지닌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시간 사용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주요 도전 과제를 살펴보고, 정책 개발에서 이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회와 교훈을 탐색합니다.

데이터 수집 관련 도전 과제

KTUS를 수집·활용해 온 정부관계자 및 연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데이터 수집 및 코딩 복잡성으로 인한 어려움: 시간사용 일지는 하루 동안 10분 단위로 모든 활동을 기록해야 하며, 위치 정보 및 동반자 여부와 같은 맥락적 변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여부도 추가로 기록하도록 요구됩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는 시간사용 데이터만의 중요한 강점이지만, 응답자와 데이터 수집자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을 초래합니다. 조사 담당자들은 시간사용조사가 특히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조사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 및 조사원들의 협조를 얻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각 활동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조사원의 추가적인 주의가 요구되며, 데이터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세밀한 검증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대면 조사 난이도: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 조정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생활 보호 우려나 대면 면접에 대한 거부감 역시 데이터 수집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 사용 데이터 수집 주기 문제: 현재 시간사용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는데, 이는 데이터 활용도를 낮추는 주요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시간사용 패턴 변화가 KTUS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특히 돌봄 제공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들이 누락되었습니다. 정책 관계자들과 연구자들은 조사 주기를 (예를 들어) 2년으로 단축하면 데이터의 시의성과 정책 반영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F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5년마다 시간 사용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정책 개발에서 데이터 활용도를 떨어뜨립니다. 또한 가시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정책들은 더 자주 데이터를 수집하여 최근 수치를 활용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신 시간 사용 데이터는 2019년이므로, 영향력과 활용성이 제한됩니다” (인터뷰 참여자 F)

동시 활동 및 맥락 정보 기록의 불충분: 시간사용 데이터에서 동시 활동(concurrent activities) 및 맥락 정보, 특히 동반자의 존재(예: 자녀나 노인과 함께 있는 경우)는 감독이나 멀티태스킹이 빈번한 무급 노동을 측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충분히 기록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러한 누락이 데이터의 정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비(非)시간 사용 변수 부족: 연구자들은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수 및 결과 변수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는 점을 시간사용 데이터의 정책적 활용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시간사용 데이터는 개인의 시간 활용 패턴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임금, 직업 유형, 기타 사회경제적 변수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 정책을 설계하는 등 노동 관련 정책을 개발할 때 시간사용 데이터보다 노동력 조사(Labor Force Survey)나 사업체 조사(Business Survey)와 같은 다른 데이터 소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 관련 도전 과제 해결 방안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의 다른 조사 데이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간 사용 데이터의 복잡성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간 사용 데이터의 복잡성은 다른 데이터에서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는 희생될 수 없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더 자주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재정적·인적 비용이 주요한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된 해법은 응답자 부담을 줄이고 조사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사 과정의 기술 혁신입니다. 인터뷰 참여자 B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이 조사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음성 녹음 기능을 활용하여 활동을 기록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하면 음성 인식 및 자동 코딩이 용이해질 것이며, 이러한 혁신은 대면 조사에 따른 비용 및 운영상의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주기를 단축하여 보다 시의성 높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 참여자 B)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개발한 경량 시간 일지 모듈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ILO는 40여 가지 활동이 사전 코딩된 15분 분량의 경량 시간 일지 모듈을 개발하여, 기존 노동력 조사와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원래의 시간 사용 데이터가 가진 풍부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5년마다 한 번 대규모 시간 사용 조사를 실시하되, 노동력 조사처럼 빈도가 높은 주요 조사에 ILO 경량 시간 일지 모듈을 활용해 조사 빈도를 높이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국 시간 사용 연구센터(CTUR)가 개발한 Extended Light Digital Diary Instrument(ELiDDI)나 세계은행(World Bank)의 스마트폰 기반 그림형 일지 (TimeTracker 앱) 등 다른 기술 혁신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더 나아가, 시간 사용 데이터를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변수가 풍부하게 포함된 다른 국가 조사와 연계해 보다 폭넓고 심층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홍보와 인식 제고를 위한 예산 확대도 필수적입니다. 데이터의 중요성과 가치를 적극 알리는 노력을 통해 데이터의 가시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활용 관련 도전 과제

데이터·성별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들은 시간 사용 데이터가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정책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중 인식과 정책 실행 간의 간극, 데이터 분석 및 정책 개발 역량의 제한, 그리고 다양한 정책 주제 탐색 부족 등의 문제가 주요 제약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중의 인식과 정책 시행 사이의 격차: 무급 돌봄 노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중적 인식과 옹호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적 대응은 여전히 더디고 불충분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E는 “국가이전계정(NTA)에 대해서는 국회나 기획재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질의 및 요청이 들어오지만, 국가시간이전계정(NTTA)에 대한 문의는 훨씬 드물며, 특히 재정 정책이나 거시 경제 정책과 관련한 논의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대상자 A는 이러한 현상을 ‘정책 격차(policy gap)’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성별 격차와 기타 현상을 수치로 입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서 나아가, 체계적인 틀과 목표를 갖추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역량의 한계: 한 인터뷰 참여자는 정책 개발 과정에서 동료들이 시간사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경험을 공유하며, 데이터의 방대함과 복잡성이 연구자나 정책 개발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시간 사용 데이터를 모두 수집했지만, 당시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면, 시간사용 데이터의 방대함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마치 백화점에서 길을 잃은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인터뷰 참여자 D)

이러한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이 시간사용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간사용 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활용하려 했던 사람들조차 그 복잡성 때문에 분석을 포기하고, 원 자료를 직접 분석하는 대신 2차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데이터는 쉽게 분석할 수 있지만, 시간사용 데이터를 온전히 활용하려면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시간사용데이터의 풍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분석 역량의 한계로 인해 단순히 시간량 분석에만 사용되어 그 활동이 이뤄진 복합적 맥락 정보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인터뷰 참여자 G)

제한적인 주제와 활용 범위: 시간사용 데이터는 킥 경제 노동자(gig economy workers), 플랫폼 노동(platform labor), 장기요양보험이 무급 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새로운 정책 주제를 탐색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부족하여, 시간사용 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B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단기·동시 고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간사용 데이터는 이러한 현상을 포착하고, 해당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A 또한 “시간사용 데이터는 연금 제도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돌봄 제공자를 지원하는 일시적 돌봄 지원(respite care) 시스템과 같은 정책을 개발하는 데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시간 사용 데이터는 기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모니터링 도구로서 의미가 큼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주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려는 시도가 부족하여, 시간 사용 데이터의 정책 활용 범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시간 사용 데이터 사용 관련 해법

시간 사용 데이터와 대중 인식 간의 간극을 해소하고,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명확한 목표와 틀을 갖추어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슈를 부각시키면서도, 정책 결정에 활용 가능한 실행 방안과 근거를 제공하는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시간 사용 데이터를 특정 정책 질문과 과제에 맞춰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과 확대에 시간 사용 데이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가사 노동 수당 도입 사례는 시간 사용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명확한 정책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정책 결정자, 연구자, 이해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사용데이터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시간 사용 데이터의 기본 개념, 방법론, 실용적 응용 사례, 직접적인 데이터 분석 및 결과 해석, 그리고 정책 권고안에 반영하는 실습 활동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시간 사용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데이터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 설명 자료를 만든 적이 있다”며 이와 같은 상세한 설명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 주제 탐구를 장려하기 위해 심포지엄, 연구 지원금, 세미나 프로젝트 등 시간 사용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이니셔티브들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을 유인할 다양한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제별 심포지엄 및 워크숍을 열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간 사용 데이터를 신흥 정책 이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사용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심도 있는 연구와 혁신적인 응용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기관, 학계, 비정부기구 간의 파일럿 프로젝트 및 공동 연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시간 사용 데이터의 실질적 응용 사례를 선보이고 현대 정책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가치를 입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후속 세미나와 프로젝트를 통한 지속적인 참여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방법론적 접근을 논의하는 정기 워크숍이 개최된다면 시간 사용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실천 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식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협력 촉진 노력은 시간사용데이터와 같이 복잡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매우 의미가 큽니다. 패널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유사한 시도가 이미 성공을 거둔 바 있으며, 이를 시간 사용 데이터에도 적용해 활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생산에 참여한 인터뷰 참여자들은 더 많은 연구와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집중적 지원을 제공하는 노력은 정책 결정에서 시간 사용 데이터가 갖는 활용도와 영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

시간사용데이터는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포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일과 삶의 방식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하며, 특히 무급 노동에서의 격차를 밝히는 데 유용합니다. 이 데이터는 성평등 증진, 일과 삶의 균형 개선, 그리고 무급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간사용 데이터 활용 경험은 정책 개발에서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본 사례 연구는 한국이 국가 차원의 시간사용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 동기, 데이터 활용에서의 성과와 제약 요인,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간사용 데이터의 통합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주요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정책 목표와 시간사용데이터 연계: 한국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 교훈 중 하나는 시간 사용 데이터를 구체적인 정책 목표에 맞추어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과 성평등 증진과 같은 시급한 정책 수요와 데이터를 연계하면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생활 균형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간사용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데이터가 어떻게 정책 도입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설계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고품질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술 혁신: 세부적인 시간사용 데이터를 수집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데이터의 신뢰성과 포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고품질 데이터 수집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은 정책 입안에 활용할 수 있는 견고한 데이터 생산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과 높은 비용은 조사 주기의 단축을 어렵게 하여 시의성 있는 자료 수집과 정책 반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 과정을 단순화하고 응답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술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시간사용 데이터 분석 결과의 효과적인 공유와 지속적인 이해관계자 참여는 사회적 지지 형성 및 인식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은 설명자료 및 맞춤형 데이터 표 제작을 통해 정책 결정자, 연구자, 미디어가 시간사용 데이터를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시간사용데이터 활용 극대화를 위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 시간사용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정책 결정자 및 연구자들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자료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분석 역량의 제약과 불충분한 정책 영역 탐색은 시간사용데이터가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이는 정기적인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정책담당자들과 연구자들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한국의 사례는 시간사용데이터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잠재력과 어려움을 모두 보여줍니다. 데이터 활용을 명확한 정책 목표와 연계하고,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생산하며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및 지속적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면 다른 여러 국가들도 시간사용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근거에 기반한, 보다 포용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통해 드러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향후 시간사용데이터가 사회의 복지와 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감사의 말

이 사례 연구는 은기수(서울대)와 전지원(서울대)이 작성했습니다. 최정화(서울대)와 강은혜(서울대)는 연구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마야 부비닉(Data2X), 마리아 플로로(아메리칸 대학교), 니라자 페누메차(Data2X), 켈시 로스(Data2X) 가 지도와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본 연구는 Generation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Buvinic, M., & King, E. M. (2018). Invisible no more? A methodology and policy review of how time use surveys measure unpaid work. United Nations Foundation, Data2X.
2. Cho, M. R., & Park, E. J. (2023). A study on the utilization and improvement of the reduced working hours system during child-rearing.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3. Choi, Y. K. (2023). Integrated operation of child care and linkage strategies for supporting home child-rearing.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 Do, N. H., Moon, M. K., Kim, B. C., Lee, Y. H., & Park, S. S. (2018). A Comparative Study on Low Fertility Issues and Childcare Policies in East Asian Countries.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5. Kang, M. J., Kim, E. J., Park, S. B., Kwon, S. Y., & Yoon, J. Y. (2019). A study of reform plans for the Parental Leave System.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6. Kang, Y. K. (2021). Exploration of Survey Analysis Techniques in Time Use Survey.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Forum, 37, 58-63.
7. Lee, Y. J. (2018). Analysis and Future Tasks of Low-Fertility Law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of Low-Fertility policy on these laws-. Journal of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9(1), 3-37.
8.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6). A study for establishing the basic plan for promoting national leisure activities. Retrieved from <https://dl.nanet.go.kr/SearchDetailView.do?cn=MONO1201637697>
9.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2). The 3rd Basic Plan for Gender Equality. Retrieved from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7&bbtSn=709071
10.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2). 2022 National Gender Equality Report. Retrieved from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0&bbtSn=704953
1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The 3rd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revised version). Retrieved from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107010100&bid=0040&act=view&list_no=358263&tag=&cg_code=&list_depth=1
1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The 4th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Retrieved from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107010000&bid=0040&act=view&list_no=358262&tag=&cg_code=&list_depth=1
1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Social Security in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378314&tag=&nPage=1
14. Statistics Korea. (2018). The Development of Household Production Satellite Account. Retrieved from <https://kostat.go.kr/synap/skin/doc.html?fn=732c23fa90c6e3904f890bbc7ac4ebee26010be19bc5d8baacfa60f165711f29&rs=/synap/preview/board/11893/>

15. Statistics Korea. (2019). Time Use Survey Statistical Report. Retrieved from <https://www.k-stat.go.kr/metasvc/msea100/statsdcdda-popup?statsConfmNo=101052>
16. Statistics Korea. (2021). 2019 Household Production Satellite Account. Retrieved from https://sri.kostat.go.kr/board.es?mid=a10301130500&bid=11893&act=view&list_no=390183
17. Statistics Korea. (2023). 2019 National Time Transfer Accounts. Retrieved from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1893&list_no=426086&act=view&mainXml=Y
18. Yi, J. H., & Chin, M. J. (2024). Changes in Parental Leave Policy and their Relationship with Female Wage Workers' Employment Statu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4(1), 398-425.

APPENDIX 1: KEY CHANGES IN CHILDCARE POLICIES IN SOUTH KOREA (2004-2020)

YEAR	CHILDCARE POLICY/PROGRAM
2004-2005	Expansion of childcare services to all infants and young children; Legalization of local child centers; Introduction of after-school care programs and elementary school care classrooms.
2007	Introduction of the Childcare Support Service with part-time home-based care services.
2008	Introduction of reduced working hours for childcare (for workers with children under 3 years old as an alternative to parental leave).
2009	Introduction of childcare vouchers; Introduction of childcare allowance.
2010	Introduction of full-day infant care services for dual-income families.
2011	Expansion of childcare allowance support to a wider age range; Reform of parental leave benefits to a proportional system.
2013	Universal childcare fee support for all children aged 0-5; Childcare allowance for children not attending daycare.
2014	Universalization of after-school care for elementary students; Expansion of parental leave eligibility to children up to age 8; Introduction of 'Daddy Month' for parental leave with special benefits.
2017	Support for extended full-day care for children in dual-income families.
2018	Announcement of the expansion of national and public daycare centers;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care system for elementary students; Introduction of child allowance.
2019	Expansion of child allowance - Universal child allowance for all children under age 7.
2020	Allowance for both parents to take parental leave simultaneously; Removal of restrictions on splitting reduced working hours for childcare; Introduction of family care leave for up to 10 days for urgent childcare needs.

APPENDIX 2: KEY CHANGES IN PARENTAL LEAVE POLICY IN SOUTH KOREA

YEAR	CHANGES IN KOREAN PARENTAL LEAVE POLICY
1988	Introduction of unpaid leave for up to one year, including maternity and postpartum leave, for working women with infants under one year of age.
1995	An exception was made to extend parental leave to fathers, allowing the spouse of a working mother to take leave instead. Extension of parental leave to be taken within one year of the child's birth, regardless of whether it is before or after childbirth.
2001	Introduction of a monthly allowance, and expansion of parental leave eligibility to all workers, regardless of gender. However, both spouses were not allowed to take parental leave simultaneously.
2006	Expansion of parental leave eligibility to cover workers with children under three years of age.
2008	Introduction of the option to split parental leave into separate periods.
2010	Expansion of parental leave to cover worker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six who have not yet started elementary school.
2011	Transition to a proportional payment system for parental leave benefits, providing 40% of the monthly ordinary wage (with a minimum of 500,000 KRW and a maximum of 1,000,000 KRW). Additionally, 15% of the parental leave benefit was set aside as a deferred payment, to be received after returning to work and remaining employed for at least six months.
2014	Expansion of parental leave eligibility to cover worker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eight or in the seco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or below.
	Introduction of a special parental leave benefit (Daddy Month): When both parents take parental leave sequentially for the same child, the first month of leave for the second parent is paid at 100% of the ordinary wage, with a maximum of 1,500,000 KRW.
2015-2019	Increase in parental leave benefits, and other amendments.
2020	Introduction of the option for both spouses to take parental leave simultaneously. Expansion of the number of times parental leave can be split to two periods.

2022 Increase in parental leave benefits, Introduction of the '3+3 Parental Leave System' for parents with children under 12 months old, allowing both parents to take parental leave either simultaneously or sequentially. For the first three months, the benefit is 100% of the monthly ordinary wage (with a minimum of 700,000 KRW and a maximum that varies depending on the duration of parental leave, capped at 2,000,000 KRW, 2,500,000 KRW, or 3,000,000 KRW). From the fourth month onward, the benefit is 80% of the monthly ordinary wage (with a minimum of 700,000 KRW and a maximum of 1,500,000 KRW).

2024 Enhanced parental leave benefits if both parents (either simultaneously or sequentially) take leave within the first 18 months after the child's birth. For the first six months, the cap on each parent's parental leave benefit is increased, providing a combined maximum of up to 39 million KRW for both parents over the six-month period (Effective January 2024).

APPENDIX 3: 2019년 한국 시간 사용 조사(KTUS) 항목 및 일지 예시

2019 KTUS 부문별 설문 조사 항목 (통계청, 2019)

부문	조사 항목
가구관련사항 (12)	① 성명 ② 가구주와 관계 ③ 성별 ④ 생년월일 ⑤ 혼인상태 ⑥ 돌봄 필요사유 ⑦ 재학 여부 ⑧ 주간 돌봄 형태 ⑨ 분거가구여부 및 사유 ⑩ 거처종류 및 주거용 연면적 ⑪ 점유형태 ⑫ 가구소득
개인관련사항 (14)	① 시간압박 여부 및 향후 줄이고 싶은 시간 ② 일과 후 피곤함 정도 및 이유 ③ 주관적 만족감 ④ 여가 만족도 ⑤ 가사분담 만족도 ⑥ 성 역할에 대한 인식 ⑦ 교육정도 ⑧ 경제활동여부 및 일하지 않는 이유 ⑨ 산업 및 사업체 형태 ⑩ 직업 ⑪ 종사상 지위 및 취업형태 ⑫ 주업 및 부업시간 ⑬ 정기 휴일 ⑭ 개인소득
시간일지 (11)	① 주행동 ② 주행동시 ICT기기 이용 ③ 동시행동 ④ 동시행동시 ICT기기 이용 ⑤ 장소 또는 이동수단 ⑥ 함께한 사람 ⑦ 시간활동 기분상태 ⑧ 건강상태 ⑨ 근무(등교)일 여부 ⑩ 시간일지 작성일의 방문자 ⑪ 시간일지 작성자

2019 시간 사용 일지 예시

시간번호	1. 주로 한 행동		2. 동시에 한 행동		3. 장소 또는 이동수단		4. 함께한 사람
	10분 동안 주로 한 행동을 씁니다.		주요 한 행동 외에 다른 행동을 동시에 한 경우 씁니다.		1. 자기 집 7. 도보 2. 직장 8. 버스 3. 학교 9. 지하철-철도 4. 남의 집 10. 택시 5. 기타(실외) 12. 자전거 6. 기타(실외) 13. 기타 교통		1. 혼자 2. 배우자 3. 만19세 미만 (손)자녀 4. 만19세 이상 (손)자녀 5. 부모(배우자 쪽 포함) 6. 형제자매, 기타가족 9. 기타 아는 사람
115 7시	퇴근해서 집으로 이동		가요 듣기		7		/
116 10	↓		친구와 전화 통화		↓		↓
117 20	저녁 식사 삼 차리기		↓		/		2, 4
118 30	가족들과 저녁 식사		오늘 있었던 일 이야기하기				
121 8시	↓		↓				
122 10	설거지하기		↓				
123 20	PC로 야구 중계 시청		간식(과일) 먹기				
124 30	↓		↓				
125 40	연속된 행동을 확실표로 표기		스마트폰으로 장 보기		/		
126 50	↓		↓				
127 9시	샤워하기						/
128 10	↓						↓
129 20	이불 깔기						2
129 30	누워서 남편과 대화하기						↓
130 40	수면						/

APPENDIX 4: KTUS를 사용한 한국 미디어 예

	날짜	제목	언론사
조사	24.3.14	레미콘 여장부도 퇴근 후엔 된장국을 끓였다	KBS뉴스
결과 활용	23.3.26	①육아 가구에 다가오는 '주 69시간'의 먹구름[시간빈곤자의 2023]	경향신문
	22.5.30	[커버스토리-시간빈곤자 ①] '저녁 있는 삶'에 초대받지 못한 노동	매일노동뉴스
	22.1.25	여성 1인가구, 나이 들수록 유급노동 시간↓ 가사·돌봄 부담↑	데일리팝
	22.10.3	부모의 부모가 돼야 했던 딸들 [눈떠보니 K장녀③]	쿠키뉴스
	22.1.20	1인 가구 여성, 남성보다 자기관리·휴식에 더 많은 시간 쓴다	연합뉴스
	20.8.7	[뉴스포스트 그래픽] 2019 생활시간, 젊은이는 잠자고 어르신은	뉴스포스트
	20.7.31	남녀 가사노동 시간 격차 5년간 겨우 22분 줄었다	서울신문
	20.7.30	[생활시간조사] 가사노동, 여성이 남성보다 2시간 17분 더 한다	아주경제
	18.5.1	[기획2] 가족 내 무급노동의 불평등과 사회정책	참여연대
	16.2.23	[생활시간조사에서 확인된 불평등 ① 교육을 통한 대물림] 부모	내일신문
	16.2.24	[생활시간조사에서 확인된 불평등 ②건강관리도 양극화] 고학력	내일신문
	16.2.25	[생활시간조사에서 확인된 불평등 ③ 여성에 치우친 가사부담]	내일신문
	10.3.30	[2009 생활시간 조사] 국민 70% "시간이 모자란다"	한국경제
	05.12.27	[생활시간 분석] 전업주부 가사노동 가치 월 111만원	국민일보
	05.5.26	통계청 '2004년 생활시간 조사'...우리 국민 24시... 적게 일하고	국민일보

조사 실시	24.3.15	한국인의 24시는?...통계청, 2024년 생활시간조사 실시	뉴시스 등
	21.8.9	통계청, '2021 생활시간조사 온라인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등.
	19.7.15	통계청, '2019년 생활시간조사' 실시...내년 하반기 발표	이투데이 등
	15.12.3	통계청, 2015 생활시간조사 국제워크숍 개최	이투데이 등
	09.9.7	통계청 '2009 생활시간 조사'	서울경제 등

APPENDIX 5: EXAMPLES OF JOURNAL ARTICLES USING KTUS, PUBLISHED IN SOUTH KOREA

Date	Title	Author	Name of Journal
24.2	How do Korean Married Couples with Children Divide Labor between Work, Household Chores, and Family Care? - Analysis of Work-Family Balance Subtypes and Associated Factors Using Latent Profile	Mi Young An & Jieun Choi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3.9	Daily Time Use of Dual-earner Couples with Young Children and Their Work-Life Balance in Korea from 2009 to 2019	Sarah Rhee & Ki Soo Eun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23.6	A Study on Care Time for Children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Status of Dual-career Couples	Hye-Jeong Yang & Sangjun Kang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23.3	Changes and Influencing Factors in Paid-Unpaid Work Hours in Couples with Minor Children, 1999-2019	Hye Jung Lee & Da Young Song	Korean Social Policy Review
23.2	Who are the workers who go back to work after work?	Hye Jin Noh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2.3	Night Worker's Leisure Time: An Analysis of 2019 Korean Time Use Survey	Woo-Jung Min & Yun-Suk Lee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2.4	Women and Men's Care Work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South Korea	Mi-Young Ahn	The Journal of Asian Women
22.3	Full-time White Collar Wage Earners' Overtime Work After the Regular Hours in Korea: A Comparative Analysis of 2014 and 2019 Korean Time Use Survey	Jong Ho Kim & Yun-Suk Lee	Korean Social Policy Review
21.5	Single Parent Time Poverty as Seen Through Time Use Survey	Kyung Hye Noh	Gyeonggi-do Women & Family Foundation
20.6	The Effects of Housework, Childcare and Paid-Work Time on Sleep Time for Dual-earner Couples with Preschool Children	Hyung An Jeong & Yoon Seok Lee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18.2	A Typology of Household Work Times in Korea: A Sequence Analysis Combined with Time Diaries of Married Couples	Mira Cho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18.1	Concepts and Measurements of Parental Care Work Using Korean Time Use Survey	Jayoung Yoon	Women's Studies Review

17.12	A study on unpaid work time of Korean married men: Time Use Survey from 1999 to 2014 data	Jin-wook Kim & Jin Kwon	Journal of Korea Social Welfare Research
17.1	Housework burden and Women's replacement behavior in dual-earner families	Jinwoo Lee & Hyunsup Geum	Journal of Family and Culture
17.1	Relative Resources and Gender Stratification within Family in South Korea	Mi Young An	Journal of Women and Economics
16.12	Employment Status and Gender Division of Labour at Home among Dual Earner Couples in South Korea	Mi Young An	Economy and Society
16.3	Determinant Factors of Time Allocation within Married Couples	Sung-Ho Cho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4	Time Allocation and Work-Life Balance among Korean Married Women: Comparison with 7 nations in MTUS (Multinational Time Use Studies) Data	SeungEun Cha, Ki-Soo Eun & Jiweon Jun	Statistics Research
15.1	The Effects of Wives' Income Contribution on Their Housework Time	Ik Hyun Joo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14.6	Changing Differences by Educational Attainment in Fathers' Family Work- Domestic Labour and Child Care	Mira Cho & Sookyung Yoo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4.1	Time Use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art-time Female Paid Workers by the Typology of Work-Life Balance	Chengyeul Park, Young Mi Sohn & Sae Sook Oh	Journal of Leisure Studies
14.1	The Gendered Division of Housework in Dual-Earner Households in Korea	Chang soon Lee	Social Science Journal
11.12	Gender Unpaid Labor Participation and National Policies in OECD Major Countries: Focusing on Time Use Survey Data	Moon-Geum Son	Report of Seoul Foundation of Women and Family
11.1	Unpaid work and leisure time shared with dual-earner couples: Focusing on Statistics from Time Use Survey	Moon-Geum Son	Journal of The Korean Official Statistics
10.12	Daily Life and Family Shared Time of Dual-Income Couples: A Focus on Time Use Survey Data	Moon-Geum Son	Report of Seoul Foundation of Women and Family
10.4	Gender Differences in Mobility Patterns among Seoul Citizens: A Focus on Time Use Survey Data	Moon-Geum So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09.12	Household Division of Labor for 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	Ki Soo Eu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07.4.	Housework and Economic Dependency among Dual-Earner Couples in Korea: Economic Exchange or Gender Compensation?	Sujeong Kim & Eunji Kim	Korea Journal of Sociology
07.1	Analysis of The Time Use of Working Women and Housewives Having Preschool Children - Centering on the Data of The Time Use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04	Yeong-Hwan Lee & Soo-Jae Lee	Journal of Home Economics Research
05.10	An Empirical Study on Unpaid Work Time of Dual-Earner Couples: Focusing on Statistics from Lifetime Use Survey	Moon-Geum Son	Issues in Feminism
05.8	An Empirical Study on the Dual Burden of Married Working Women: Testifying the Adaptive Partnership, Dual Burden and Lagged Adaptation Hypotheses	Jin-Wook Ki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APPENDIX 6: LIST OF INTERVIEWEES ORGANIZATIONAL AFFILIATIONS

- 통계청
-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 육아정책연구소
- 고용노동부
- 한국노동연구원
- 수원대학교